

CEO 동경

철도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 협약식



김광재 이사장은 16일 국토교통부 및 카이스트, 교통대, 우송대 등 3개 대학과 함께한 '철도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

호남고속열차 제1호편성 공개

- 10만km 이상 시운전 거쳐 '14년 말 개통 -

기술본부는 2014년 말까지 완공하는 호남고속철도에서 운행할 제1호 고속열차 10량을 공개했다. 열차는 2012년 4월 제작에 착수하여 1년 4개월 만에 제1호 열차가 제작 완료되었으며, 약 3개월간 제작공장 내 시운전선에서 각종 기능 확인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 운행선에서 10만km 이상 시운전을 시행한다. 호남고속차량은 KTX-산천 운행에서 발생한 결함을 분석하여 모터블록 개선 등 주요 고장원인을 제거하였으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좌석 공간을 기존 열차보다 57mm 확대, 항공기 타입의 좌석 테이블 설치 등 인체공학적인 설계 적용, 모든 좌석에 모바일용 전원 콘센트 설치, 인터넷 서비스 속도향상을 위한 4G모뎀 채택, 객실 LED조명 및 온도조절 기능 추가, 조작이 용이한 출입문 열림 스위치 채택, 방음재 추가 적용으로 객실

소음저감 등 승객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또 좌석수도 기존 KTX-산천 대비 47석 늘어난 410석(특실 33석, 일반실 377석)으로 수송능력을 13% 향상하여 경제성을 확보했고 운전제어기, 제동제어기, 운전 정보현시장치 및 계기용 변류기를 국산화하여 약 51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국내부품산업을 육성하고 유지보수성도 개선했다. 한편, 호남고속차량은 총 736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국고(50%)와 철도공단 부채(50%)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으며,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목포까지 현재 3시간 11분 소요에서 1시간 6분 단축된 2시간 5분에 이동이 가능하여, 국민교통편의 증대 및 호남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철도부지 소유권 소송 승소

- 지적공부와 등기부 불일치한 17억원 상당의 철도부지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에 따르면 공단은 경춘선 선로부지인 서울 노원구 공릉동 320-2번지 철도부지 1필지(면적 3136㎡, 공시지가 17억원 상당)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소송 관련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위 토지는 6·25 한국전쟁으로 지적공부 및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1958년경 철도선로로 지적공부는 복구되고, 등기부는 행정불명인 개인명의로 회복등기가 되었으나, 지적공부상의 지목 및 면적과는 현저히 불일치하여 무효의 등기 상태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토지의 상속권자라는 이유로 등기부상 행정불명인 개인명의로는 등기말소를 청구하고, 국가에게는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에 따라 국유철도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공단이 국가소송을 수행한 사건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토지를 원고의 선대가 일체 강점기 토지조사사업 결과 토지 사정을 받았으나 이후 경춘철도주식회사가 적법하게 매수했고,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재산은 1946년 5월 17일 군정법령 제75호에 의하여 국유화되었으며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미군정을 승계한 대한민국이 소유권자라고 판결했다. 법무처 관계자는 한국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일체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철도부지 소유권과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철도부지 관련 소유권 소송에 적극 대처하여 국유재산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사 구내식당 운영자에 지역 중견기업 '한울' 선정

- 대·중소기업 공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8월 23일자로 위탁운영계약이 만료되는 본사 구내식당의 새로운 위탁 운영사업자에 대전지역 중견기업인 (주)한울F&S를 최종 선정했다. 노무복지처는 지금까지 구내식당 운영사업자로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600명 이상 집단급식 운영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대기업을 선정했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대기업과의 공생발전 등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운영실적 300명 이상으로만 자격을 완화하여 대기업 참여를 배제하고 중소·중견기업만이 참여토록 지난 7월 16일 나라장터(G2B) 및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에 응모한 10개 중소기업자에 대한 운영능력·식당운영계획·제안설명회 및 현장실사·서비스 차별화 방안 등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받아, 노사 공동 평가위원회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위생사고 등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세부사항 협의를 거쳐 8월 23일 2년간의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다. 경영지원실 관계자는 "대전지역 중견기업인 (주)한울F&S가 새로운 위탁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철도공학석사 25명 배출

- 우송대학교와 사내대학원 운영협력으로 융합형 창의인력 양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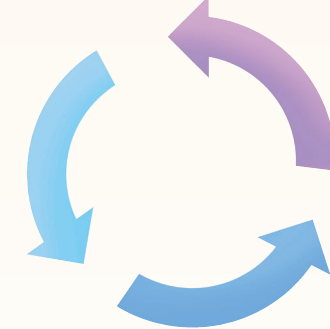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이 철도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선도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2012년 3월부터 우송대학교와 산학협력 방식으로 사내 녹색철도대학원을 운영한 결과 1기생 25명 전원이 철도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철도는 차량, 전기, 토목, 건축, 정보통신 등 여러 부문의 기술융합 산업이므로 녹색철도대학원은 기존 대학원의 석사과정과 같이 학점을 이수하되, 철도·교통공학, 물류정책 등의 이론과 설계, 운영계획, 해외철도사업전략 등 다양한 분야간 융·복합 실무교육으로 특성화하였고 또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계절학기 수업을 통해 통상 2년이 소요되는 석사과정을 1년 6개월만에 수료하도록 하였다. 한편, 녹색철도대학원은 지난 3월 26명이 2기생으로 입학하여 내년 8월 석사학위 취득이 예정되어 있는 등 앞으로도 철도건설과 해외철도시장 진출을 선도할 통섭(統攝)형 핵심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예정이다.

새로운 학습모델로 직원간 전문지식 공유 활성화

- '소통적 학습모델'로 업무 성과 향상 효과 -

기술본부는 '소통적 학습모델(Communicative Learning)'을 적용하여 직원 간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개방함으로써 업무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발견하는 등 업무성과를 높이고 있다. '소통적 학습'이란 부서별로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직원을 선정하여 담당 업무의 핵심기술과 시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발표한 뒤, 연관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후배 직원들과 함께 토론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토론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이 학습모델을 처음 적용한 수송계획처 연덕원 처장은 "열차운행에 적합한 시설계획 수립, 안전시공을 위한 작업방법 조정, 완공시설물에 대한 종합성능검증, 철도운행을 위한 선로사용계획 수립(선로배분) 등 운영과 건설기술 분야의 전문 지식을 두루 이해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전 직원이 넓은 안목과 융·복합적 기술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특별히 교육시간을 내지 않고도 부서 단위로 언제든지 교육을 시행할 수 있고, 활발한 소통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면 타 분야에서 전입한 직원들이나 신입사원들의 업무 적응 효과가 매우 높아 앞으로도 이를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원주~강릉 철도건설 공사 손해보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4개 업체 제안서 평가, 동부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 선정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원주~강릉 철도건설 7개 공구 공사손해보험계약 일괄입찰에서 동부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일괄계약방식인 이번 공사 보험가입금액은 1조404억원 규모로 국내 9개 원수보험사를 대상으로 8월 7일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4개 업체(단독 2, 공동수급체 2)가 참여하였으며, 13일 내·외부 전문가 7명(외부 4, 내부 3)으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험분석 및 보험조건, 보험운영계획 등을 평가(70%)하고 14일 보험요율 개찰 결과(30%)를 합산한 결과 동부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이 최고 점수를 획득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경영지원실은 동부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과 보험요율 및 보험조건 등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하여 합의 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8월 중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보험사간 경쟁촉진과 중·소보험사의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완화(단독인찰의 허용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원수보험료 실적 제외)한 결과, 기존 참가자격에 의한 경우 3개 공동수급체만 참여 가능했지만 이번 입찰에는 단독 2개사, 공동수급체 2개사 등 총 4개사가 참여하여 경쟁이 확대됐고, 원수보험료 실적 제한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중·소보험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참여업체 현황 : 4개사)

구분	단독 응찰	공동수급체 응찰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사, 70%)	동부화재해상보험 (대표사, 50%)
참 여 보험사	LI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구성사, 20%)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구성사, 40%)
		더케이손해보험 (구성사, 10%)	롯데손해보험 (구성사, 10%)

부서 간 칸막이 철폐로 기술융합 적극 실현

- Value 엔지니어링, 설계심사에 기술분야 협업체계 도입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7월 초 시행한 조직개편에 따라 그 동안 토목, 궤도, 전력 등 분야별로 각각 시행되던 *Value 엔지니어링(VE)과 설계심사를 사업별로 통합하여 시행한다. 이번 제도개편으로 변전실 및 신호·통신실 건물의 경제적 설계는 물론, 전기설비의 효율적 배치와 유사·중복 기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으로 사업비 추가절감과 시설물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부는 개선 전 VE 20건과 설계심사 31건의 시행계획을 사업별로 통합하여 시행토록 개선함으로써 시행 건수를 각각 9건과 18건으로 줄여 VE 및 설계심사의 질을 제고하고, 공단은 물론 사업에 참여하는 설계사 등에 대한 고객만족도 및 업무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부 관계자는 "이번 VE, 설계심사 사업별 통합 시행방안"을 통해 기술분야 간 소통강화와 중복기능 통합 등으로 기술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단은 2012년 VE와 설계심사를 통해 3569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한 VE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이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성과를 이룬 바 있다.

* Value 엔지니어링(Value Engineering, VE)이란?
- 설계내용에 대해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을 도모하는 절차, 기법을 말함